지식경제부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0년 12월 3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김선민 투자정책과장, 김효진 사무관(02-2110-5356), 박성우 사무관(5363)	

'10년 외국인직접투자 129억불, 10년만의 최고 기록

- 신성장동력 분야, 그린필드형 투자 증가 뚜렷 -
- 중국 등 신흥국의 투자 급증으로 선진국투자 집중 현상 완화 -
- 2011년 150억불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

1. 전반적인 동향 및 평가

□ **(동향)** '10년 외국인직접투자액(신고기준)은 전년(11,484백만불) 대비 **12.1% 상승**한 **129억불**(잠정) 수준이 될 전망

○ 대규모 외자유치가 이루어졌던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의 최고 수준**

(단위: 백만불, %)

구분	1999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12.28)
신고금액	15,545	15,265	9,095	12,796	11,247	11,711	11,484	12,876
증감률(전년대비)	75.49	△1.8	△19.4	97.7	△2.8	11.4	△1.9	12.1

□ **(평가)** 지난 6년간 지속된 **100~110억불대 수준을 벗어나**, 본격적인 **투자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

○ **'10년 세계 FDI 부진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對韓 투자가 증가한 것은 국내 경제의 **건전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반영

* '10년 세계 FDI 전망 : (OECD) △8%, (UNCTAD) 전년수준

○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던 **미국·일본의 對韓 투자 회복이 외국인 투자 증가에 크게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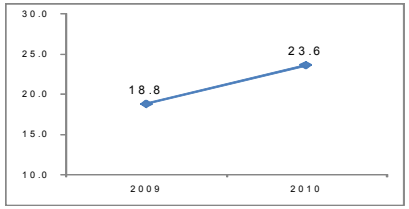
* 미국 투자 증감(전년동기비) : ('10상) 35.8%↓, ('10하) 72.2%↑
* 일본 투자 증감(전년동기비) : ('10상) 47.3%↓, ('10하) 93.4%↑

○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이 민간투자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투자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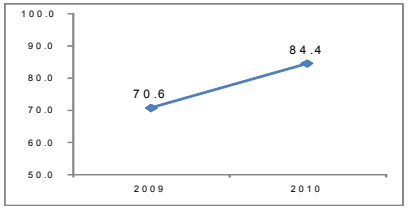
○ 천안함 침몰(3.26), 연평도 포격(11.23) 등 **남북긴장상황**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

2.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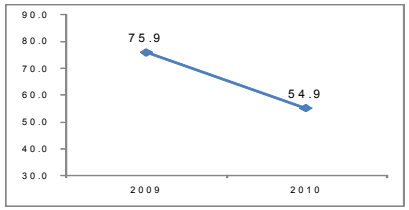
< 신성장동력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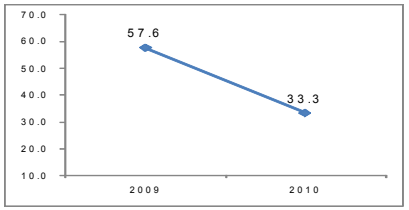
< 그린필드투자 비중(%) >



< 선진국 비중(%) >



< 수도권 비중(%) >



① **신성장동력 투자 비중 증가**: ('09) 18.8% → ('10) 23.6%

○ **바이오제약,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가 부각

* 바이오제약 : **셀트리온**(바이오시밀러, 1.9억불, 싱), **동아제약**(신약개발, 1.3억불, 英)
* 신재생에너지 : **영양풍력발전**(풍력, 62백만불, 스페인) 등
* 콘텐츠·소프트웨어 : **아이덴티티게임즈**(게임, 25백만불, 中) 등

○ **제조업**(6,539백만불, 75.6%↑)이 '04년 이후 **6년만에 서비스업**(6,227백만불, 18.0%↓)**을 상회**

- **제조업**은 **의약, 화공, 기계장비** 부문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유통·물류 분야 대형투자가 줄고***, 금융위기 후 **금융업 부진** 지속

* '09년 유통분야 주요 대형투자 : 이베이지마켓, 13.6억불

< 주요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

(단위 : 백만불, %)

업 종	2008	2009	2010	증감율
제조업	3,007	3,725	6,539	75.6
- 의약	40	0	692	순증
- 화공	572	204	883	333.5
- 기계장비	241	178	360	102.6
서비스업	8,388	7,595	6,227	△18.0
- 금융	4,608	1,252	960	△23.3
- 유통·물류	1,643	2,469	1,154	△53.3
- 비스니스서비스	1,143	1,947	902	△53.7

2 그린필드형 투자 크게 증가: ('09) 70.6% → ('10) 84.4%

○ **국내기업간 M&A가 활발***해 지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M&A 투자**(2,012백만불, △40.4)는 크게 **감소**

* '10상 M&A금액 증감율(전년동기비, 공정위) : 국내-국내기업 30%↑, 외국-국내기업 75%↓

3 신흥자본국 투자 증가로 선진국 집중 현상 완화: ('09) 75.9% → ('10) 54.9%

○ **중국**(414백만불, 159.2%↑)*은 **전기전자, 비즈니스서비스**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China Desk 설치('10.5월) 이후 372백만불(전체의 90.0%)이 투자되어 대중국 유치전략의 성과 가시화 시작

* 아이덴티티게임즈(중국의 싱가폴 우회투자), 제주 웨딩테마리조트(중국의 홍콩 우회투자) 등 감안시 실제 중국의 투자는 7억불 내외

- **인도**(371백만불)는 **운송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

○ **미국**(1,906백만불, 28.3%↑)은 **부동산임대·유통, 일본**(2,083백만불, 7.7%↑)**은 화공·기계**가 회복을 이끌었으나, 주요 투자업종인 **금융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함**

- **EU**(3,086백만불, 41.7%↓)는 화공, 의약분야 투자는 늘었으나 그 외 **대부분 업종이 감소**

<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

(단위: 백만불,%)

연도	2008	2009	2010	증감율
전통선진국	9,091	8,717	7,076	△18.8
미국	1,3281	1,486	1,906	28.3
일본	1,424	1,934	2,083	7.7
EU	6,339	5,297	3,086	△41.7
신흥투자국	2,621	2,766	5,800	109.7
중화(중국)	1,691(335)	1,462(160)	1,583(414)	8.3(159.2)
중동	27	238	171	△28.1
기타	903	1,066	4,046	279.6

4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편중 현상 완화**: ('09) 57.6% → ('10) 33.3%

○ 지자체별로 **투자금액**은 **경북, 서울, 경기** 순, 전년대비 **증가율**은 **광주, 경북, 충남** 순

* 투자액상위(백만불) : 경북(2,703), 서울(2,443), 경기(1,376)
* 증가율상위(%) : 광주(889.5↑), 경북(506.3↑), 충남(206.2↑)

3. 2011년 투자유치 여건 및 전망

□ **(긍정 요인)** 대외적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 증가, 엔고** 등으로 **일본의 해외투자 확대전략, 신흥국 해외투자 증가** 등

○ 대내적으로 **美·EU와의 FTA 효과***, 한국의 **견조한 경제 성장세, G20 개최에 따른 인식 제고** 효과

* 한-EU FTA 발효시 EU의 對韓 직접투자가 30% 증가 전망(IBM Consulting)
*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불의 직접투자가 추가 유입될 것(KDI 등, 07년)

□ **(불안 요인)** 대외적으로 **유럽국가 재정위기 지속, 중국의 긴축 기조, M&A 활동 둔화 전망** 등

○ 대내적으로 **남북긴장상태 지속으로 인한 한반도 리스크, 원화 강세** 등의 요인 잠재

* 금년 세계 FDI는 감소폭이 둔화 추세이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및 보호주의 영향으로 **증가세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OECD Investment News, '10.11월)

·글로벌 FDI 추이 : ('08) △19% → ('09) △43% → ('10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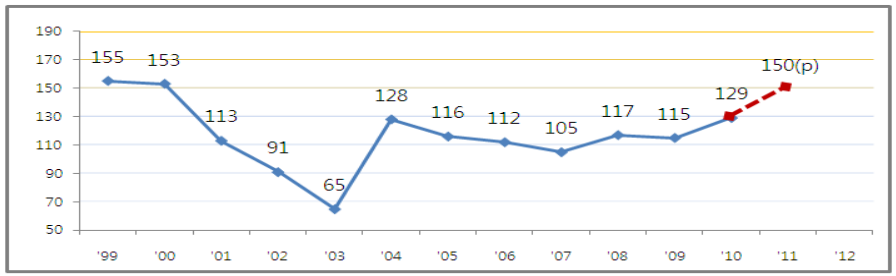
□ **(투자유치 전망)**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투자환경과 정책노력을 통해 **150억불 달성을 위해 노력**

○ **美·EU와의 FTA, 한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세**(5%) 등을 적극 홍보하고 **내년 초 집중적인 IR** 활동 전개

○ 중국·중동·러시아 등 **신흥자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 강화**

<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및 '11년도 전망 >

(단위 : 억불)



4. 2011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활동 계획

1 남북 긴장고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방지** 및 **우호적인 투자환경 홍보 효과를 조기 활용**하기 위해 **연초 집중 IR 추진**

< 집중 IR 계획 >

시기	국가	활동내용 및 유치대상	비 고
1월	**일본**(동경)	부품소재, SOC	지경부, KOTRA, 국토부
2월	**미국**(뉴욕, LA)	금융, 신재생에너지	지경부, KOTRA, 지자체, 금융기관
4월	**중국**(북경)	관광·레저, 신재생에너지	한중 투자협력포럼 개최
	홍콩·싱가폴	바이오, 지역개발, 금융	지경부, KOTRA, 지자체, 금융기관

2 해외투자가 활발한 **신흥투자국에 대한 유치활동을 강화**

○ 차이나머니 유치를 위해 **중국 상무부와 「한·중 투자협력포럼」 창설을 추진**하고, 투자유치 거점인 **China Desk 역할 강화***

* 상해 중심 China Desk를 북경, 광저우 등 3개 권역으로 확대(예산: '10년 5억 → '11년 10억)
* CIC(중국국부펀드)의 1억불규모 한국전용펀드 출범('11년 예정)을 對韓 투자 확산 계기로 적극 활용

○ **러시아**(6월), **인도**(11월) 등 최근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이머징국가에 대한 IR**을 최초로 추진

○ **「한-아부다비 투자협력 포럼」 정례화** 및 **주요 투자가 방한 초청** 추진 등 중동 투자유치 확대 여건 조성

3 **美·EU FTA를 최대한 활용**한 전통투자국 유치활동 추진

○ 일본중심의 **부품소재 유치 체계**(Japan Desk)를 **유럽·미국 등**으로 확대하여 **'부품소재 투자협력센터'**로 개편

○ **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다중협력 사업**(GAPS 사업)* 확대를 통한 선진기술·지식서비스 유치 지원 강화

* '11년 GAPS 사업을 10건 이상('10년 4건)으로 확대하고, 사업분야도 제조업에서 그린에너지 등 지식서비스 분야로 확대

○ 중견·중소기업이 FTA를 투자유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FTA 활용 지원센터'** 설치 검토

참고1 2010년 주요 투자유치 사례

I. 신성장동력 분야 주요 투자사례

① **셀트리온**(바이오시밀러 제조, 190백만불, 싱가폴→네덜란드)

- 국내 최대 바이오시밀러 업체인 셀트리온은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Temasek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9억불 투자(지분 10.55% 취득)를 유치하여 바이오시밀러분야 유럽시장 공략의 계기를 마련

* 09.11에 서울반도체(2.35억불)에 이은 두 번째 한국 기업 직접투자 사례

② **동아제약**(신약개발, 128백만불, 英)

- 글로벌 제약사인 GSK와 전략적 제휴로 글로벌신약개발 및 공동판매 등의 행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시장에 진출하여 3천억원 이상의 매출증가가 예상

③ **영양풍력발전공사**(풍력, 62백만불, 스페인)

- 스페인 악시오나의 경북 영양·청송 풍력단지 투자는 1,200억원의 직간접 생산효과, 42백만달러의 에너지 수입대체효과 및 17만톤의 탄소배출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④ **서한NTN베어링**(풍력발전기용 베어링제조, 45백만불, 일본)

- 서한그룹과 일본 NTN사(세계 3대 베어링 제조업체)와 합작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품질 풍력발전기용 베어링을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풍력발전기 업체의 수요에 대응하고, 200여명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기대

⑤ **롬앤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LED 소재, 45백만불, 미국)

- 롬앤드하스를 인수한 다우케미컬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LED 핵심소재인 삼중메틸갈륨 등의 국내 생산으로 수입대체 및 국내 기술이전이 예상

II. 대표적인 지방 외국인투자사례

① (충남) 에드워드코리아(진공펌프 및 압축기 제조, 33백만불, 英)

- 영국내 진공펌프 생산시설 및 생산본부를 완전히 한국(충남)으로 이전함으로써 고용창출 472명, 수입대체효과 및 연간 수출증대효과 2,500억원 기대

② (경남) 한국쯔바키모토오토모티브(자동차부품, 23백만불, 日)

- 엔진드라이브체인분야에서 세계 1~2위인 일본의 쯔바키모토체인이 현대자동차에 고성능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부품소재전용공단(남문지구)에 공장 건설

③ (제주) 버자야제주리조트(관광, 30백만불, 말레이시아)

- 세계적인 자연친화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제주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면적 43만㎡)을 추진 중으로, 연평균 2만명(직접고용 4천명)의 고용효과와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이 기대

III. 신흥국의 주요 투자사례

① 아이덴티티게임즈 (게임, 95백만불, 중국→싱가포르)

- 중국 2위 게임업체인 샨다 게임즈가 한국의 아이덴티티게임즈를 인수한건으로서, 샨다의 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하여 동사의 해외사업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지난 8월초 중국에서 공식서비스를 개시한 아이덴티티게임즈의 “드래곤네스트”는 동시접속자 수가 70만명으로 중국내 온라인게임 순위에서 10위 기록

② 아덴텍코리아 (반도체장비, 40백만불, 대만)

- 대규모 반도체 테스팅 센터 설치로 약 100명의 신규고용창출과 그동안 해외에 의뢰해오던 국내 반도체기업들의 웨이퍼 테스트를 국내에서 수행하여 테스트기간 및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

③ 새니동아 (건설기계, 100백만불, 중국→싱가포르)

- 중국 Sany동아의 건설기계 조립공장 투자는 한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건설기계장비의 수입대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참고2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통계

□ 산업별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8	2009					2010				
	연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계
제조업	3,007 (25.7)	913 (54.4)	755 (25.4)	510 (15.1)	1,547 (44.6)	3,725 (32.4)	654 (42.4)	1,341 (48.0)	1,661 (56.7)	2,884 (51.4)	6,539 (50.8)
(부품소재)	2,548 (21.8)	832 (49.6)	699 (23.6)	489 (14.5)	987 (28.5)	3,008 (26.2)	320 (20.8)	1,178 (42.2)	1,523 (52.0)	2,144 (38.2)	5,165 (40.1)
서비스업	8,387 (71.6)	757 (45.1)	2,195 (74.0)	2,848 (84.4)	1,794 (51.8)	7,594 (66.1)	822 (53.4)	1,449 (51.9)	1,264 (43.1)	2,691 (48.0)	6,227 (48.4)
기 타	317 (2.7)	7 (0.4)	18 (0.6)	16 (0.5)	124 (3.6)	165 (1.4)	64 (4.2)	1.4 (0.1)	7 (0.2)	37 (0.7)	110 (0.9)
전 체	11,711	1,677	2,967	3,374	3,465	11,484	1,540	2,791	2,932	5,612	12,876

＊ 기타는 1차 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의미, ( )내는 비중

□ 지역별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8	2009					2010				
	연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계
미 국	1,328 (11.3)	358 (21.3)	247 (8.3)	141 (4.2)	741 (21.4)	1,486 (12.9)	40 (2.6)	349 (12.5)	386 (13.2)	1,132 (20.7)	1,906 (14.8)
일 본	1,423 (12.2)	661 (39.4)	517 (17.4)	626 (18.6)	129 (3.7)	1,934 (16.8)	262 (17.0)	360 (12.9)	414 (14.1)	1,048 (18.7)	2,083 (16.2)
E U	6,339 (54.1)	535 (31.9)	1,265 (42.6)	2,123 (62.9)	1,374 (39.7)	5,297 (46.1)	842 (54.7)	565 (20.2)	677 (23.1)	1,003 (17.8)	3,087 (24.0)
기 타	2,621 (22.4)	123 (7.3)	938 (31.6)	484 (14.3)	1,221 (35.2)	2,767 (24.1)	397 (25.8)	1,517 (54.4)	1,455 (49.6)	2,429 (43.3)	5,800 (45.1)
전 체	11,711	1,677	2,967	3,374	3,465	11,484	1,540	2,791	2,932	5,612	12,876

＊ ( )내는 비중

□ 투자형태별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8	2009					2010				
	연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계
M&A형	4,426 (37.8)	188 (11.2)	1,362 (45.9)	1,600 (47.4)	225 (6.5)	3,375 (29.4)	532 (34.6)	352 (12.6)	348 (11.9)	779 (13.9)	2,012 (15.6)
Green field형	7,279 (62.2)	1,490 (88.8)	1,605 (54.1)	1,774 (52.6)	3,240 (93.5)	8,109 (70.6)	1,008 (65.4)	2,440 (87.4)	2,584 (88.1)	4,833 (86.1)	10,863 (84.4)
공장 설립	1,153 (9.8)	649 (38.7)	377 (12.7)	375 (11.1)	1,285 (37.1)	2,688 (23.4)	320 (20.8)	1,059 (37.9)	469 (16.0)	2,248 (40.0)	4,935 (38.3)
사업장 설립	6,127 (52.3)	840 (50.1)	717 (24.2)	1,399 (41.5)	1,955 (56.4)	5,421 (47.2)	688 (44.7)	1,381 (49.5)	2,111 (72.0)	2,565 (45.7)	5,885 (45.7)
전 체	11,711	1,677	2,967	3,374	3,465	11,484	1,540	2,791	2,932	5,612	12,876

* 제조업에 대한 Greenfield형 투자는 공장설립 이외에 영업시설 등을 포함하므로 제조업에 대한 Greenfield형 투자 규모는 공장설립 규모와 다름. ( )내는 비중

□ 규모별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8	2009					2010				
	연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계
1억불 이상	5,239 (44.7)	874 (51.2)	1,832 (61.8)	2,189 (64.9)	2,063 (59.5)	6,958 (60.6)	603 (39.2)	1,872 (67.1)	1,748 (59.6)	3,227 (57.5)	7,451 (57.8)
1억불 미만	6,472 (55.3)	803 (47.9)	1,135 (38.3)	1,185 (35.1)	1,402 (40.5)	4,526 (39.4)	937 (60.8)	920 (32.9)	1,184 (40.4)	2,385 (42.5)	5,425 (42.2)
1천만불~ 1억불	4,580 (39.1)	479 (28.5)	771 (26.0)	825 (24.5)	947 (27.3)	3,023 (26.3)	641 (41.6)	552 (19.8)	835 (28.5)	1,838 (34.5)	3,966 (30.8)
1백만불~ 1천만불	1,497 (12.8)	248 (14.8)	281 (9.5)	284 (8.4)	376 (10.8)	1,189 (10.4)	215 (14.0)	283 (10.2)	266 (9.1)	356 (6.3)	1,120 (8.7)
1백만불 미만	395 (3.4)	76 (4.6)	83 (2.8)	76 (2.3)	79 (2.3)	315 (2.7)	81 (5.3)	85 (3.0)	83 (2.8)	91 (1.6)	339 (2.6)
전 체	11,711	1,677	2,967	3,374	3,465	11,484	1,540	2,791	2,932	5,612	12,876

* ( )내는 비중

□ 시점별

(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

	2008	2009					2010				
	연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계
신규투자	4,421 (37.8)	496 (29.6)	1,222 (41.2)	427 (12.7)	1,873 (54.1)	4,018 (35.0)	370 (24.0)	1,710 (61.3)	855 (29.2)	2,509 (44.7)	5,444 (42.3)
증액투자	6,263 (53.5)	937 (55.9)	1,325 (44.7)	2,921 (86.6)	1,408 (40.6)	6,590 (57.4)	1,026 (66.6)	800 (28.7)	1,974 (67.3)	2,857 (50.9)	6,657 (51.7)
장기차관	1,027 (8.8)	245 (14.6)	421 (14.2)	27 (0.8)	184 (5.3)	876 (7.6)	145 (9.4)	281 (10.1)	102 (3.5)	246 (4.4)	775 (6.0)
전 체	11,711	1,677	2,967	3,374	3,465	11,484	1,540	2,791	2,932	5,612	12,876

* ( ) 내는 비중